

HOT
ISSUE

계열사는 슈퍼갑의 횡포를 중단하여야 한다!

어렵게 얻은 의무자조금의 의미 퇴색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의 발전과 글로벌화가 빨라지면서 국가 간의 교역에 대한 규제와 차별이 사라지고 국제무역시장에서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럽과의 FTA체결에 이어 미국과도 체결을 완료하였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FTA비준을 위한 협의도 시작하였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국내 축산업은 안팎의 시련에 직면하여 존재의 기로에 서있다. 축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혐오산업으로 인식되어 미래지향적인 발전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고, 아직은 일부의 주장이지만 육류의 위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의 철폐로 수입축산물에 대한 가격의 무기로 국내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우리 축산업계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만들어 국내산 축산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에서는 소 울음소리와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닭고기 분야는 소나 돼지에 비해서 높은 경쟁력과 유리한 소비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닭고기만은 냉동이 아닌 신선육을 선호하고 있고 대형계열사 중심의 선진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장 점유에 있어서도 타 축종보다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수입육의 대부분은 일부 프랜차이즈에서 순살 치킨용 등으로 사용하고, 일반 외식업체와 대형마트의 가공육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가 수입닭고기를 신선육 형태로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닭고기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하고 닭고기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인 동시에 우리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는 국산 축산물 간의 경쟁이 현실화 됐다는 점이다. 얼마 전 소값하락 파동이 닥치자 정부는 군인들의 급여량 확대와 막대한 자조금

비용을 동원하여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하였고 결국 쇠고기 가격은 회복하였으나 양돈농가와 육계산업 관계자는 말도 못하는 속앓이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도 이제는 닭고기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닭고기 자조금은 희망이다

이런 여건 속에서 자조금사업의 확대는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육계산업은 그동안 계열회사들의 폐해로 농가와 계열회사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이 깊어왔고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닭고기 자조금의 역사를 돌아봐도 2004년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5년이 지난 2009년 6월에서야 계열사의 참여 없이 농가들만 첫 거출금을 거둘 수 있었다. 자조금 거출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열회사들은 자조금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자조금 거출에 보이지 않는 방해와 압력을 가해왔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2012년부터 계열사가 자조금 사업에 동참하기 시작하였고 한우 자조금이나 한돈 자조금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지만 2013년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대폭 성장하였다. 이런 화합의 분위기는 20여 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닭고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 전체가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도 계열사가 동참하면서 발생한 자조금 이중부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출금을 농가와 회사로 분리하여 거출금액을 조절하는 등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농가의 자조금 거출률 향상을 위하여 전체 도계장에서 일괄거출협조를 협의하는 등 농가와 회사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조금은 중요하나 농가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대부분 계열사에서 농가의 자조금 거출에 비협조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계열사가 자조금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자조금사업이 닭고기산업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열사는 자조금사업에 참여하면서 농가가 참여하는 것은 막으려 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혹시 자조금사업이나 여러 가지 닭고기산업에 관한 일들은 계열사에서 다 알아서 할테니 농가들은 신경쓰지 말고 닭이나 키우고 주는 사육비나 받으라는 참으로 위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특히 일부 계열사에서 농가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나니 농가들이 자조금 거출을 거부하여서 거출할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닭고기 자조금은 법으로 납부의무가 부여된 말 그대로 의무자조금이다. 계열사에서 납부의무를 묻는다는 것은 의무자조금을 임의자조금으로 변질시키는 초법적인 발상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농가가 납부를 거부한다고 해도 계열사에서 자조금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납부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계열사에서 자조금사업의 중요성을 한 번이라도 농가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하였는지 묻고 싶다.

닭고기 회사 직원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계열사에는 월급을 받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다.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면서 법에서 정한대로 각종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월급을 준다.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세금납부 의사를 묻고 세금을 내기 싫다는 직원들에게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다. 산업구조가 계열회사사업으로 정착된 닭고기산업은 산업의 주도권이 계열

사에 편중되어 있고 농가의 역할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가를 무시하고 편법 내지 탈법으로 농가들의 닭고기산업발전을 위한 참여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계열사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농가들에게 사과와 고사하고 계열사가 망하면 농가도 망한다는 물귀신작전을 쓰면서 협박 아닌 협박으로 농가를 위협하는 것은 요즘 흔히 말하는 슈퍼갑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계열사는 슈퍼갑의 횡포를 중단하여야 한다

계열사가 농가의 자조금 거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것은 산업의 주도권을 가진 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른 부분에서도 농가를 회사에 예측된 생산의 도구가 아닌 산업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 계열사가 농가를 무시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슈퍼갑의 횡포이다. 축산 계열화법도 축산분야에서는 슈퍼갑의 횡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닭고기 자조금은 농가와 계열회사가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을 접어두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이다. 계열사는 농가의 자조금 거출에 적극 협조하여 위기에 빠진 닭고기산업을 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이흥재 위원장





한 병 권 의장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총회

한병권 의장이 처음 육계를 사육하기 시작한 시기는 '82년이다. 어릴 적 꿈이었던 닭을 키우기 위해 사랑방에서 병아리 3백마리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였다. 한병권 의장은 경기도 일산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육계가 다른 축종에 비해 사육 회전율도 빠르고 자금 회전율도 빨라 육계를 사육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렇게 한병권 의장이 육계를 사육한 지도 어느덧 32년이 되었다. 한병권 의장은 '80년대에 병아리를 입추할 당시만 해도 서울이나 광주에서 기차로 이동해왔다고 한다. 당시에는 병아리를 5백마리도 받고 천마리도 받았으며, 3~5천수 정도의 병아리를 입추하면 농장의 규모가 제법 큰 시기였다. 지금은 8~10만수의 농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닭고기 가격은 3~4천원에 달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았다. 병아리도 연속입추가 가능해 15일에 한 번씩은 병아리를 받았으며 환경 탓인지 병아리의 질병 피해도 덜했다고 한병권 의장은 당시를 회상했다.



한병권 의장은 현재 전북 남원에 위치한 한촌농장에서 8만 1천수의 육계를 사육하고 있다



인터뷰

닭고기자조금은 농가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의식 필요

자조금은 수입닭고기 막고 정부에 농가의 요구사항 전달하는 창구역할 수행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는 소비촉진으로 전 국민에게 닭고기 우수성 홍보 필요

■ '80년대 계열화사업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해 지금 계열화사업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80년대 말~'90년도 초에 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계열화 사업이 양계 산업에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계 산업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육계 농장의 규모는 커지고 농가들의 소득은 안정되어 갔습니다. 계열화 사업이 활성화 되기 이전에는 육계사육이 시세에 워낙 민감해 흥하면 흥하고 망하면 망하는 경우가 허다했지만, 계열사에서 주기적으로 병아리를 공급해주면서 농가들이 일정액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 점은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열사가 등장하면서 농가의 소득은 안정된 반면 큰 소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각 계열사의 병아리 상태와 사료효율에 따라 사육 성과가 좌우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열사들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열사들이 농가와 함께 육계 산업을 지켜나가고 성장시키기 위해 농가에게 어느 정도의 충분한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도 진정으로 농가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앞으로는 계열사가 가족재해보험의 보험금 수익자로 나서지 못하도록 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재해보험료 중에서 국고 지원 50%나 지자체 20% 정도의 보험료 보조금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계열사에서 원자재에 대한 질권담보를 설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열사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앞으로도 계열화 사업이 진정으로 농가를 위한 형태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 거출률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육계의 경우, 7월부터는 닭고기자조금을 계열사가 3원, 농가가 2원을 거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닭고기자조금은 의무자조금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들이나 농가들이 임의자조금으로 간주해서 거출률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7월 이후로도 거출이 안 되면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서 독촉장을 내거나 고발조치를 하여서 의무자조금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닭고기자조금의 거출률 향상을 위해서는 농가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농가들은 그동안 자조금이 종계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을 높여서 육계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다

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또한 자조금은 농가들의 실질적인 권익보호와 향상에 기여하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농가들은 그동안 자조금을 통해 수입산닭고기의 유통을 막고 계열사들의 횡포를 저지하며 정부에 농가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닭고기자조금은 농가 모두의 힘을 하나로 집중시킴으로써, 농가들이 개인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합니다.

■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자조금 활용방안이 궁금합니다.

우선 닭고기 소비촉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연구발표에 따르면, 적색육(소, 돼지고기)은 과다섭취 시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가 백색육, 즉 닭고기라고 합니다. 이렇듯 타 축종에 비해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닭고기에 대한 적극적인 광고나 홍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가 전 지역에서 골고루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조금 사무국은 닭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 지역에 걸쳐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닭고기의 우수성을 각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정책을 알리거나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것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한촌농장은 지난해 극심한 폭염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가족재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폭염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조금 사무국에서 농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제공한다면 불황을 타개하고 불안한 미래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양계인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양계산업은 닭고기가 점점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 축종에 비해 앞으로 전망도 좋고, 사육 회전률도 빨라 닭 출하 후에는 한 달간 쉬며 다음 사업 구상도 할 수 있는 멋진 사업입니다.

이렇게 멋진 양계산업이 지속가능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농가와 계열사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HOT ISSUE

내년 7월 1일부터 정부 검사관이 도계장 도축검사 실시예정

6월 27일 국회 본회의 가결, 검사관의 도축작업 중지명령 신설

앞으로 도계장의 도축검사는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에서 정부 검사관으로 바뀔 예정이다.

그동안 포유류(소, 돼지 등)의 도축검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수행해 왔으나, 가금류(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제도가 도입·시행된 1978년 이후 업체 고용 책임수의사가 담당해 왔다. 실제로 축산물위생관리법 11조 1항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는 도축검사에 대하여 정부에서 파견한 검사관(공무원)의 검사를 받게 되어 있으나, 닭·오리 등 가금류의 경우는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서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35년 간 가금류에만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국회나 소비자 단체 등에서 제기되어 왔고, 한국을 제외한 미국, 캐나다,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업체가 고용한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하는 제도는 찾아볼 수 없다며 지난 1월 17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특히 농축산부는 공무원이 아닌 업체가 고용한 책임수의사가 도축검사 업무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국내 삼계탕용 닭의 미국 수출이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부는 지난해 12월 7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하루 10만 마리 이상 닭·오리를 도축하는 작업장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3년 간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지난 3월 23일 축산물위생관리법이 농축산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농축수산물정책과로 책임부서가 이관됨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체되어 왔다.

식약처는 도계장 내 정부 검사관 파견

과 관련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현행대로 실시한다면 영업자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던 일부 책임수의사의 신분 및 고용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 기간에 앞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정안은 가금류의 하루 평균 도계수가 8만마리 초과인 도계장은 2014년 7월 1일, 5만마리 이상 8만마리 이하는 2015년 1월 1일, 5만마리 미만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정부 소속 검사관을 파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13조 2항의 신설이다. 가축의 도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여타 식육이나 도축시설 및 장비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 소속 검사관이 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자칫 정부 소속 검사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도계장의 도축이 중지되어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하겠다.

식약처가 제출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정안은 지난 6월 2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안이 가결된 상태이며, 7월 중으로 정부이송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앞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도계장 내 정부 검사관 제도에 대해 일부 농가에서는 업체에 소속된 수의사가 아닌 공무원(검사관)의 투입으로 보다 공정한 도축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과연 도계장 내 정부 검사관 투입이 삼계탕 등 닭고기의 수출에 기여하고 공정한 도축검사의 발판이 될지, 아니면 도계장의 자율성을 억제하고 경직성만 초래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닭고기 공급량 감소로 7월 육계산지가격 kg당 1,700~1,900원 전망

농경연, 닭고기 수입량과 비축물량 감소로 공급량 감소 예상

7월 육계 산지가격이 닭고기 공급량 감소 및 수요 약보합으로 1,700~1,900원/kg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육계관측정보(7월호)를 통해 육계생산성 향상으로 7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한 9,399만 마리로 전망했으며, 7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2.5% 감소한 9,211톤으로 전망했다. 또한 농경연은 6월 육계 산지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6월 9일 기준 냉동 비축물량은 전년 동월보다 0.9% 감소한

774만 마리로 예상했다. 따라서 농경연은 닭고기 수입량과 비축물량 감소로 7월 닭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1억 1,364만 마리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7월 닭고기 수요는 약보합세가 전망됐다. 농경연은 부정육 단속으로 냉동 비축 닭고기보다 신선 닭고기의 수요가 전년보다 증가했으나 작년 7월과 같은 올림픽 특수가 없어 7월 닭고기 수요는 전년 대비 약보합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닭고기 공급량이 감소하지만 수요는 전년 대비 약보합이 예상되어,

농경연은 7월 육계 산지가격이 1,700~1,900원/kg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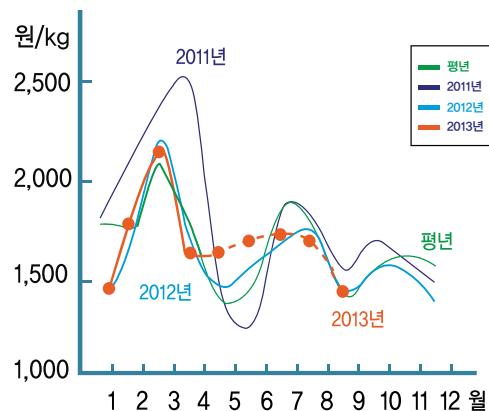
농경연은 7~8월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높고 신계군의 생산가담으로 중계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8~9월 도계 마릿수가 전년 대비 증가해 8월 7,342만 마리 이상, 9월 5,686만 마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8~9월 닭고기 수요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육계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육계 산지가격은 1,800원/kg, 9월 육계 산지가격은 1,600원/kg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농경연은 9월 이후 병아리 생산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적정 종계 사육 마릿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육계 산지 가격 전망

* 자료 :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지금 해외에선

식품의 1/3 첨가물 및 화학물 함유량 기준치 초과 비상

태국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재단(FOUNDATION FOR CONSUMERS)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식품의 3분의 1이 기준치를 초과한 과도한 첨가물과 화학물을 함유했거나 라벨표시를 잘

태국, 국내 친환경 무항생제 닭고기 제품의 진출 기대돼

못해 안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태국 소비자협회의 Mr. Pachara Kaewkla는 안전하지 못한 식품으로 주로 육류와 가공식품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제품에는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한 다량의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붕사, 색소, 포름알데히드 등

을 섭취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태국 내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식품과 음식점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교촌치킨, 본촌치킨(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한국식 치킨전문점) 등 한국치킨 프랜차이즈점도 현지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태국인들의 현지 식품에 대한 불안감과 한국음식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친환경 무항생제 닭고기의 생산이 활발한 국내산 닭고기 업체와 농가의 태국시장 진출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출처 : 코트라 글로벌원도우〉

H O T
ISSUE

0 0 3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 알린 명품축제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

100인분 닭갈비 무료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 펼쳐져

'2013년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행사를 진행하며, 춘천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축제에는 '100인분 춘천닭갈비 무료시식회'도 진행되어 국내산 닭고기만을 사용하는 춘천닭갈비의 뛰어난 맛과 영양학적 우수성을 방문객들에게 알

리는 계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62년 만에 춘천시민의 품에 돌아온 캠프페이지의 개방을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도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캔, 소찬휘, 박진도 등 인기 가수가 참여한 KBS 특별 축하공연과 함께 전국에서 모인 1000명의 음악인이 동시에 악기를 연주하는 '춘, 1000인 음

악회'가 펼쳐졌다.

이번 축제를 준비한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 조직위원회 우중동 사무국장은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가 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축제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축제를 홍보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도 "그 동안 대한민국 국악제, 아시아 살사댄스

대회, 중국기예단 초청공연, 캠프페이지 개방 특별공연 등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 온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해 호반의 도시 춘천을 알리고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춘천닭갈비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알리는 명품축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닭갈비축제
무료시식회 및
이모저모

▼ 축제의 성공을 비는 고천제를 지내는 춘천닭갈비협회 최시영 회장



◀ 한지공예를 체험하고 있는 아이들



▲ 닭갈비 판매부스를 찾는 방문객들



▲ '100인분 닭갈비 무료시식' 행사 모습



▲ 춘천 미공개 사진전을 관람하는 방문객들



▲ KBS 특별공연을 펼치고 있는 아이들그룹 'EXCITE'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란?

2008년부터 닭갈비와 막국수축제 통합운영

춘천의 향토음식인 닭갈비는 이제 전국민에게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다. 하지만 '60년대 처음 춘천닭갈비가 등장할 때만 해도 돼지 불고기를 하던 식당에 돼지고기가 떨어져서 닭고기에 불고기 양념을 바른 것이 최초의 춘천닭갈비일 정도로 생소한 음식이었다. 이후 다양한 양념과 함께 닭갈비의 맛을 일정하게 유

지할 수 있는 12mm 철판이 개발되면서 춘천닭갈비의 명성은 높아져 갔다.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의 시작도 독특하다. 처음에는 1996년 당시 춘천에서 성행했던 막국수를 알리고자 '춘천 막국수 축제'가 진행되었다. 2005년부터 '춘천 닭갈비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닭갈비와 막국수 축제가 통합되어 현재 6회째를 이어가고 있다.

처음 축제가 통합 운영될 당시에는 막국수가 80%, 닭갈비가 20%를 차지했지만, 점점 닭갈비를 찾는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닭갈비 80%, 막국수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는 두 향토음식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축제인 만큼 명칭의 사용에 있어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짝수년에는 닭갈비·막국수 축제, 홀수년에는 막국수·닭갈비 축제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대구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

'2013년 치킨맥주 국제페스티벌(이하 치맥축제)'이 오는 7월 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보조경기장(두류야구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치맥축제는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치킨의 중추도시 대구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개그맨이 펼치는 코믹 '닭 위령제', 트로트 무대인 'MBC 가요베스트', 취객에게 제공되는 코믹감옥 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도종닭협회가 치맥축제를 후원해 국내산닭고기가 대중에게 사랑받고 닭고기 관련 축제가 국민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도록 치맥축제 운영진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 개최지 캠프페이지의 발자취

다양한 부지개발 사업 통해 단절된 춘천시의 동서간 소통의 역할 기대

올해 춘천 막국수·닭갈비 축제가 옛 미군기지였던 캠프페이지에서 진행되면서 캠프페이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62년 만에 춘천시민에게 반환된 캠프페이지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군수품 보급을 위한 활주로로 활용되었다. 1958년에는 한국전쟁 정전 이후 한미상

호방위조약에 따라 북의 남침에 대비해 캠프페이지 부대를 창설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해 왔다.

1983년 5월 5일에는 중국 민항기가 불시착해 착륙했으며 송환문제로 중국과의 첫 교섭이 이뤄지면서 한·중 수교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다.

2005년에는 최성 국회의원이 미국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인용해 캠프페이지

에 주한미군의 핵탄두가 보관됐었다는 것을 밝혔으며 1972년에는 핵탄두 관련 사고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약 67만㎡ 규모의 캠프페이지는 춘천시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춘천시 근화동과 소양로 일대가 소음 피해 및 개발제한의 문제를 겪다가 2005년 대한민국에 반환되었고, 8년 간의 정비 끝에 2013년 6월 춘천 시민에게 개방되었다.

지부탐방

자조금 납부 농가에 차별성 부여해야

농가가 자조금의 필요성을 느낄 때 참여지속될 듯



논산육계지부 정운광 지부장

6월 26일 논산육계지부 월례회의는 논산계룡축협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축협 회의실에는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한 회원들이 어느새 회의장 열기를 뜨겁게 채워가기 시작했다. 50여명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논산육계지부는 장기간 논산지부의 총무직을 역임해왔던 정운광 지부장의 노력으로 40여명의 회원이 월례회에 참석하여 적극성을 띠고 있었다.

자그마한 체구에 지부장이라고 하기엔 젊은 나이임에도 원로회원들도 믿고 따를 만한 열의가 대단했다. 10년이 넘

도록 논산지부의 총무를 맡아왔던 탓에 지부운영 실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익숙하다.

자조금이나 지자체 지원사업 등에 관한 질문에 마치 준비해온 듯 줄줄이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한 두 농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계열사육을 하고 있는 논산지부는 한때 지부에서 회원들의 자조금 거출창고 역할을 하면서 자조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자조금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정운광 지부장은 아쉬워했다. “자조금을 내는 농가가 눈에 보이는 혜택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참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점차 거출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속사정을 털어놓는다. 자조금의 필요성을 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정부예산을 받고자

한다면 자조금 납부실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조금 납부를 정부사업 지원자 선정에 의무조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렇지 못하다”며 이 때문에 자조금 거출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논산지부는 농가의 백신 지원사업에 산을 늘려 농가수익 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논산지역 축산단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건의하여 축산부분에 지원금을 늘리고 이를 통해 양계농가 백신지원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다. “타 축종과 함께 축산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혜택 범위를 늘리는데 노력한 결과”라며 지원금도 축산농가 권익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나가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축사시설제한구역 조례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주기적으로 내 기존시설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운광 지부장은 앞으로 다수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적이고 투명한 지부운영을 해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특히 오랜 기간동안 지부활동을 해왔던 만큼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부회원에게 정말 필요한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 대리 이남희



논산육계지부 월례회의의 더운 날씨에도 많은 회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경청하고 있다



육계질병가이드 / 괴사성장염의 발생과 치료

Q. 더운 여름철에 괴사성장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괴사성장염의 발생원인과 증상 및 발견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최근에 웰빙 열풍을 타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축산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 2003년부터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이 추진되어 축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항생제량을 감소시키고자 배합사료에 첨가 가능한 항생제를 점차 줄여나가고 있고 2011년부터는 전면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안전한 축산식품의 생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배합사료 내 항생제의 사용으로 발병 억제되고 있던 세균성 질병들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질병이 괴사성장염입니다. 괴사성장염은 클로스트리디움균의 과증식에 의해 생성된 독소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또한 클로스트리디움균은 토양, 먼지, 사료, 분변 등 계사 환경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증식환경이 조성될 경우 8~10분에 2배씩 증가할 정도로 매우 빠른 증식력을 가지고 있어서 균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괴사성장염은 클로스트리디움균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장관점막을 소실시켜 장염, 혈관수축, 심근이상으로 인해 급성폐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군 내에서 이 질병이 발생되면 심한 침울, 식욕부진, 장염에 의한 증체량 감소, 복부지방 증가, 거친 우모 등의 증상이 관찰되고, 사료섭취량은 감소하는 반면에 음수량은 증가합니다. 부검 소견으로는 장점막이 부풀어져 있고, 장관 내 점액이 증가된 이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계사 내 분변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가 되지 않은 사료가 섞인 분변, 장점막 탈락으로 인한 오렌지색 분변에서 짙은 갈색의 분변까지 비정상적 색깔이 다수 관찰됩니다. 이 질병을 초기에 검색하기 위해서는 계사 내 분변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고, 특히 증상이 확인되면 수의사의 처방을 통해 초기에 치료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juyoon@bansuk.biz로 문의해 주세요.

(제공 :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

체리부로, ‘싱싱 AF 닭고기’ 판매 중



(주)체리부로는 친환경 무항생제 웰빙 닭고기 ‘싱싱 AF 닭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사)한국계육협회가 지난 6월 21~23일까지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된 ‘2013년 친환경 축산 페스티벌’에서 방문객들에게 소개하기도 한 ‘싱싱 AF 닭고기’는 업계 최초로 친환경 농산물 취급인증을 획득했으며, 병아리에서 닭까지 일체의 항생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최적의 환경에서 키운 친환경 무항생제 닭고기이다.

‘싱싱 AF 닭고기’에 포함된 ‘체리

믹스’는 서울대학교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닭의 병에 대한 내성과 면역력을 강화해 건강한 발육을 돕는 항생제 대체제이다. (주)체리부로 관계자는 ‘체리믹스’가 천연 해조 미네랄을 첨가하여 장내의 pH 안정과 소화생리 유지로 닭의 사육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벌집 채취 성분인 프로폴리스를 첨가해 면역기능을 강화하고 닭의 소화기와 호흡기 질병을 예방한다고 전했다. 또한 특수 생균제를 이용해 정장작용과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 전해질 제제를 이용해 닭의 대사기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주)체리부로는 2007년 5월 축산기술연구소와 무항생제 육계사육 기술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며, 농축산물 연구기관인 우리생명과학을 통해 사육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받는 등 무항생제 닭고기 ‘싱싱 AF 닭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사육환경 관리 및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개인 닭고기자조금 납입 현황(2013년 6월)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소
노철환	평화농장	150,000 (300,000)	전북 임실군 삼계면
이달준	인촌농장	120,000 (120,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이영순		135,000 (135,000)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남상길	법곳농장	140,000 (140,000)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성순	성경농장	201,000 (588,810)	전북 고창군 해리면
진정수	구구축산농원	120,000 (280,00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배광수	수월농장	92,580 (192,780)	경남 거제시 수월길
김춘자		214,800 (214,800)	충남 아산시 염치읍
김지왕		81,450 (81,450)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이상길	한마음농장	100,000 (200,000)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서승호	해뜨는농장	100,000 (200,000)	경기 화성시 마도면
한민전	호박골농장	83,000 (175,000)	충남 홍성군 홍동면
이옥례	해피농장	205,995 (611,727)	전남 곡성군 검면
이봉재	경인농장	117,060 (228,060)	충남 천안시 동남구 경천면
지귀영	부처물농장	150,000 (330,000)	경기 화성시 마도면
김이순	만경농장	196,170 (777,570)	전북 김제시 만경읍
이용균		270,000 (270,000)	

* 명단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2-585-9974)

(사)대한양계협회



축산과학원에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의견 제시

본회 이준동 회장은 지난 6월 4일 축산과학원에서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협의회에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준동 회장은 국산 닭고기의 품질 및 저장기간 향상을 위한 급속냉동, 급속해동 기술 개발과 양계산물의 유통에 관한 연구를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이준동 회장은 중계가 대부분 외국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고유원종을 개발하여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축산과학원측은 농촌진흥청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축산물의 냉·해동기술을 개발하고, 아젠다 연구개발 로드맵과 연계해 계란의 유통구조개선과 계란가공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2021년까지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수출 및 수입대체 종자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축산과학원을 비롯한 연구소, 대학, 협회, 관련업체 등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GSP 연구과제 수행으로 경쟁력 있는 종자를 개발하여 보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I 방역체제 '특별'단계에서 '평시'단계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년 야생철새 도래시기 및 주변국 AI발생 위험시기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대응해왔다. 올해의 경우 중국의 신종 AI(H7N9형)

가 발생하면서 특별방역기간을 연장하여 차단방역을 실시해왔으나 중국 신종 AI 발생이 지난 5월 21일 이후 추가발생이 없었고, 국내 예찰검사 동형 바이러스 검출이 없는 점을 고려해 7월부터 9월까지 방역체제를 특별단계에서 평시 단계로 전환하였다. 본회에서도 이에 맞춰 매일 저녁 실시하던 상황근무를 9월까지 평시체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전화연결 상황근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축산부는 AI방역대책 상황실도

평시로 전환하여 평일에만 운영키로 하였다. 하지만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주관 하에 구성된 중앙기동점검반은 축산농가 방역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농축산부는 그 외에도 네덜란드에서 적용한 사례 벤치마킹 및 미국, EU 등 선진국의 가축질병 방역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국내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본회에서도 평시단계 방역태세를 갖추고 농가방역 및 혹서기를 대비한 계사관리를 위한 홍보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사)한국계육협회



축산전문지 기자방담회 실시

계육업계 상반기 이슈에 대해 대화

본회는 지난 6월 26일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축산전문지 기자 6명을 초청, '월간 닭고기' 창간 18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기자방담을 가졌다.

이날 방담자리에서 '상반기 계육업계 이슈'에 대해 기자들의 격의없는 대화가 오갔다. 자세한 내용은 창간 18주년 기념 특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9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닭고기 포장유통 개선대책 등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3일 충남 천안소재 한 음식점에서 제9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닭고기 포장유통 개선대책, P-Box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축산계열화사업법에 관한 법률 책자 제작 및 배부



된 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지난 6월 25일 본회 회원사 사육부로 배포(택배발송)했다.

이와 관련 본회는 각 회원사 사육부에

각 회원사 사육부로 택배 발송

본회에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포함

공문을 발송하고 본 책자를 농가회원에 전달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해 주기를 당부했다.

닭고기 물류기기(P-Box)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계획 마련



계육협회는 국내산 신선 닭고기의 위생적 유통과 물류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P-BOX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요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본회는 이에 앞서 각 회원사에 닭고기 물류기기(P-Box) 이용실태 및 수요파악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오는 7월 20일까지 기 발송한 조사표를 작성해 본회로 송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협의회 개최, 닭고기 물류기기(P-Box) 공급방안에 대해 논의

본회는 국내산 신선 닭고기의 위생적 유통과 물류비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닭고기 물류기기(P-Box) 이용실태 및

수요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본회는 이에 앞서 각 회원사에 닭고기 물류기기(P-Box) 이용실태 및 수요파악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 오는 7월 20일까지 기 발송한 조사표를 작성해 본회로 송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사회회의 개최



이사회에서는 협회 CI·BI 제작건 및 한·중 FTA 참석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CI, BI 변경 등 주요 안건 의결

본 협회는 지난 6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협회 이사 8여 명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사회회의에서는 전 회의록, 자조금 사업 변경, 수급조절, 한·중 FTA 집

회, 전통시장 일제 소독 결과 및 소독비 지원 경과보고를 하였다. 이어 안건인 협회 CI·BI 제작건, 한·중 FTA 참석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김연수 회장은

“남은 2013년도에도 회원,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이익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이에 가장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본 협회 홈페이지 리뉴얼 안내

지난 5월 협회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서버 업체 부도로 인해 이용이 불가했던 협회 홈페이지(www.knca.kr / www.한국토종닭협회.kr)가 새롭게 단장하여 오픈했다.

이번 홈페이지는 협회소개, 토종닭정보, 커뮤니티, 시세정보, 토종닭뉴스, 토

종닭소식지 등 토종닭 산업과 동향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리뉴얼했다고 밝혔다. 또한 홈페이지 리뉴얼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종사자 간 의견 공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KOREAN NATIVE CHICKEN ASSOCIATION
(사)한국토종닭협회

산닭유통분과위 주관 '좌담회' 개최



좌담회 참석자들은 산닭산업의 제도권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최승호 산닭유통분과위원장은 “산닭 시장은 도계장이 생기기 이전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전통과 관습”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산닭 시장에

대한 대안과 대책도 없이 불량식품으로 간주해 단속에 나서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또한, “이제 분과와 협회를 중심으로 산닭 산업에 대한 양성화를 이끌어 내야 하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성 농가분과위원장은 “토종닭 산업이 최근 급속한 계열화가 진행되면서 농가에서 출하할 곳은 산닭 쪽으로 집중된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하며, “산닭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우리 농가와 부화장, 종계장이 함께 생존할 수 있다”고 산닭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좌담회 토론자와 참석자 모두 산닭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산닭 산업의 제도권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다짐했다.

“토종산닭 시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제로 내보

지난 6월 24일 대전 유성 소재 유성호텔에서 농업인신문 주최, 본 협회 산닭유통분과 주관으로 “토종산닭 시장 어떻게 할 것인가?”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좌담회는 특히 최근 전통시장 양성화와 제도권 진입을 목표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산닭유통분과가 중심이 되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문정진 상임부회장은 “지난 '03년 당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해 자가도축을 불법으로 하려는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 협회 태동”이라고 설명하며, “이후 토종산닭과 농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지난 '09년 농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 올해는 축산법에 토종닭의 정의를 넣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중단! 6차 협상규탄! 전국농수축산인결의대회 개최



1만여 명의 농수축산인이 한·중 FTA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7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벡스코 옆 오디토리엄에서

지난 7월 2일(화)에 부산 벡스코 옆 오디토리엄에서는 약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대규모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등 전국 생산자단체와 농수축산인이 참여하여 한·중 FTA에 대한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였다.

지난 2012년 5월 초 정부에서 한·중 FTA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5차 협상까지 진행한 상태이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높은 수준의 자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1

단계 협상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중 FTA 중단 비상대책위원회는 강도 높은 전국농수축산인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공약가계부 발표에 따른 농업 예산 삭감시도 철회, ▲쌀 목표가격 인상, ▲사료가격 안정화를 통한 축산농가 보호대책 마련 등 박근혜 정부의 농업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결의대회에서는 규탄발언과 결의문 낭독, 벡스코 앞에서 해운대역까지 2.9km에 걸쳐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중 FTA 중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농수축산인대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농수축산물 대부분은 한국보다 절대적 비교우위에 있어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어촌 경제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협상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닭가슴살과 숙주 매콤 무침

숙주나물은 원기를 돋구어 주고 몸속의 열기를 내려주어 더위를 먹어서 속이 답답하거나 갈증이 날 때 제격이다.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일품인 숙주나물은 영양만점이지만 퍼석퍼석할 수 있는 닭가슴살에 식감을 더해준다.

재료 닭가슴살 2쪽, 숙주나물 300g, 로스햄 3장, 삶은 계란(반숙) 2개, 오이 1개
매콤소스 간장 4큰술, 설탕 1큰술, 식초 2큰술, 두반장 1작은술, 참기름 2큰술, 다진 마늘 1작은술, 소금, 술, 식용유(올리브유)

- Cooking**
1. 숙주는 살짝 삶고 오이, 로스햄을 숙주 굵기로 썬다.
 2. 닭가슴살은 소금, 술을 조금씩 뿌려 식용유를 적당량으로 발라 양면을 구워 손으로 가늘게 찢는다.
 3. 분량의 재료를 잘 섞어 매콤소스를 만든다.
 4. 숙주와 오이, 닭고기, 로스햄을 섞어 ③의 매콤소스 절반량을 넣어 버무린다.
 5. ④의 무침을 그릇에 담고 세로로 4등분한 반숙계란을 곁들이고 남은 소스를 끼얹는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날말맞추기

1	2			12	
			10		11
3					
		6		7	
4	5			8	
			9		

◇ 가로풀이 ✨ ✨

1. 중계수탉과 산란계 암탉의 교배에서 생산된 닭. 주로 삼계탕의 원료로 쓰임
2. 경상북도 남동부에 위치한 시. 신라의 천년고도. '2013년 전국양계인대회'가 개최된 지역
3. 축구 등에서 한 팀이 상대팀보다 먼저 넣은 첫 골
4. 험한 산이나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하여 조직한 무리
5. 비밀이나 잘못된 일 따위가 드러난 판국
6.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림
7. 나무의 줄기를 가로로 지른 면에 나타나는 둥근 데

◇ 세로풀이

1.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2. 서울 상봉역과 강원도 춘천역을 잇는 복선전철 노선
3. 정보를 제공함
4. 등 한 가운데로 길게 고랑이 진 곳
5. 한 나라나 집안의 운명을 지고 나갈 만큼 중요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항공이나 항해에 쓰이는 지리적인 방향지시 체계
7. 남성의 가장 높은 음역, 또는 그 음역의 가수
8.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손위인 사람

51호 정답

	ㅍ	ㅊ		ㅍ	
울	를		문	ㅈ	ㅈ
	ㅈ	ㅈ	을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ㅈ



양계 비법전수

고온 스트레스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고온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환기방법은 터널식 환기로써, 계사 내 풍속을 높여서 체감온도를 낮추어 줄 수 있다. 풍속이 0.25m/초일 때 체감온도 0.5℃를 낮출 수 있는데 풍속이 초속 2.53m인 경우는 체감온도를 5.6℃까지 낮출 수 있어서 30℃ 이상인 날씨에서도 닭들은 25℃정도의 체감온도로 고온 스트레스를 방지할 수 있다. 개방식 계사의 경우에도 쿨링팬(틸레

이팬)을 설치하거나 측면커튼을 닫고 터널식 환기를 실시하면 체감온도를 낮추어 고온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쿨링팬의 사용도 계사 내 온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쿨링팬의 설치효과는 팬의 두께, 풍속, 온·습도 등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며, 우리나라와 같이 습한 기후인 경우 3~10℃, 사막처럼 건조한 기후는 10~15℃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단, 쿨링팬 사용 시 습도가 15% 가량 상승하므로 계사 내 상대습도가 70% 이상일 때에는 쿨링팬을 단속(斷續)적으로 가동해야한다. 계사 내 안개분무장치를 사용할 경우에도 계사 내에 습도가 상승하므로 반드시 습도를 확인하고 환기팬을 작동하여 계사 내 수분을 배출시키고 기회를 촉진해주도록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AI 차단방역 철저

시 에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